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www.inss.re.kr

June 2026
No. 386

INSS 전략보고

중동 전쟁의 지경학적 함의와 한국의 경제안보 대응 방향

홍건식
hks21c@inss.re.kr

Ⅰ. 서론
Ⅱ. 미국의 대(對)이란 개입의 경제안보적 함의
Ⅲ. 지경학적 파급효과
Ⅳ.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 대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June 2026
No. 386

CONTENTS

중동 전쟁의 지경학적 함의와 한국의 경제안보 대응 방향

I. 서론

II. 미국의 대(對)이란 개입의 경제안보적 함의

1.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영향력 확대
2. 해양 초크포인트 통제권 강화
3. 대(對) 중국 견제

III. 지경학적 파급효과

1.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불안정성
2. 글로벌 금융질서 변동성 확대
3. 중동 지역 내 미·중 경쟁 심화

IV.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 대안

1. 시사점
2. 정책적 함의

중동 전쟁의 지경학적 함의와 한국의 경제안보 대응 방향

저자 | 홍건식

국문 초록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이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금융·물류 시스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중동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에너지 공급망, 핵심 해상 초크포인트(Chokepoint), 국제 금융 질서, 첨단 산업 경쟁이 상호 연결된 복합 경제안보 위기로 평가 가능하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및 LNG뿐 아니라 암모니아·헬륨·석유화학 원료 등 첨단 제조업과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의 주요 이동 경로로 기능하고 있으며, 해협 불안정은 글로벌 공급망 비용 상승과 물류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은 드론·기뢰·해상 통제 위협 등 비대칭 전술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제 유가·운임·보험료 상승을 통해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 강화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영향력 유지와 중국의 에너지·첨단산업 비용 부담이라는 전략적 목적과 일정 부분 연계되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영역으로, 향후 국제정세 변화와 정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금융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달러화 등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달러 중심 질서가 유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달러 기반 결제 확대와 공급망·금융체계 다변화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다.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이번 중동 위기의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해상 물류 안정성 확보, 금융·통화 부문의 회복탄력성 강화 등 중장기 경제안보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SMR(소형모듈원자로)·재생에너지·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산업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적 균형성과 경제안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 외교·통상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경제안보, 미국, 이란, 중동전쟁, 회복력

Ⅰ 서론

▪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이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금융·물류 시스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개전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였으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와 이란의 비대칭 대응이 지속되면서 중동 정세는 장기 불안 국면으로 진입 중
- 전쟁의 영향은 군사 영역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번 중동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에너지 공급망·핵심 해상 초크포인트(Chokepoint)·결제 통화 체계·첨단 산업 경쟁이 상호 연결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차원의 복합 위기로 평가 가능

- 해협 불안정은 글로벌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 압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블록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 강화가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영향력 유지와 중국의 에너지 접근성 제한 등 전략적 목적과 연계되어 있다는 분석도 제기

▪ 한국은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와 중동 중심의 에너지 수입 구조로 인해 이번 중동 위기의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원유·LNG·석유화학 원료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및 해상 운임 상승은 정유·화학·항공·해운 등 국내 주요 산업의 비용으로 작용하며 국가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금융 측면에서도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로 달러 강세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복합적인 거시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최근 국제질서는 군사안보 중심 질서를 넘어 에너지·기술·금융·물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안보 중심 질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주요국들은 핵심광물·반도체·에너지 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략 비축 확대와 공급망 재편,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강화 등을 통해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우리 정부 역시 비축유 방출, 공급망 안정화 정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있으나, 미·중 경쟁 심화와 중동 리스크의 구조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중장기 경제안보 전략 보완이 요구됨.

▪ 본 보고서는 2026년 중동 위기가 국제 경제안보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중 전략 경쟁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대응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제2장에서는 미국의 대(對)이란 개입을 에너지·공급망·경제안보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중동 위기가 글로벌 에너지·금융·공급망 질서에 미치는 지경학적 파급효과를 검토하며, 제4장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미국의 대(對)이란 개입의 경제안보적 함의

1.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영향력 확대

▪ 2026년 중동 위기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에너지 공급망과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 측면에서 전략적 함의를 가짐

-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에너지 자급률이 크게 개선되면서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과거 대비 상당 부분 축소하였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지속[1]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과 핵심 자원 확보를 국가안보 및 산업경쟁력과 연계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2]
-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동 내 에너지 공급망 영향력을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해상 물류 흐름에 대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3]

▪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전략적 위치는 미국의 에너지·공급망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

-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및 LNG 수송의 핵심 통로일 뿐 아니라, 암모니아·헬륨·석유화학 원료 등 첨단 제조업과 농업 생산에 필요한 전략 물자의 주요 이동 경로로 기능[4]
- 이란의 해상 통제 능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은 미국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 이번 중동 위기는 에너지 공급망과 국제 금융 질서 간의 연계성을 다시 부각하는 계기로 작용

1 Sara Vakhshouri, "'Energy dominance' reconsidered: From domestic abundance to global strategic leverage," 『Atlantic Council』 March 10, 2026,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energysource/energy-dominance-reconsidered-from-domestic-abundance-to-global-strategic-leverage/ (Accessed: April, 16, 2026)

2 조준형, "트럼프"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하는 것도 옵션의 하나", 『연합뉴스』 2026년 3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7002300071 (검색일: 2026년 4월 20일)

3 Steven Burns, "A US Strategy for Energy Competition with China in Emerging Markets," *Atlantic Council*, April 10, 2026, https://www.atlanticcouncil.org/in-depth-research-reports/issue-brief/a-us-strategy-for-energy-competition-with-china-in-emerging-markets/ (Accessed: April, 20, 2026)

4 Mohammed Al-Hashemi, "The Strait of Hormuz is not just an oil chokepoint," ALJAZEERA, 27 Mar 2026,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6/3/27/the-strait-of-hormuz-is-not-just-an-oil-chokepoint (Accessed: April, 16, 2026)

- 미국은 오랜 기간 달러 기반 에너지 거래 체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우위를 유지해 왔으며, 중동 지역의 에너지 흐름 안정은 이러한 금융 질서 유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5]
-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 강화가 에너지 시장 내 영향력 유지와 비(非)달러 기반 에너지 거래 확대 움직임 견제라는 측면과도 일정 부분 연계됨[6]
- 다만 최근에는 중국·러시아·중동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안화·자국통화 기반 결제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어, 향후 국제 에너지·금융 질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은 기술·산업 경쟁과 연계된 핵심 전략 영역으로 부상

- 중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은 중국의 제조업 및 AI 산업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일부 분석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에너지 지배력과 해상 초크포인트 영향력을 활용해 중국의 전략적 비용 부담을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7]
- 다만 중동 위기의 전개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실제 정책 효과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 필요

2. 해양 초크포인트 통제권 강화

▪ 미국은 해양 초크포인트의 안정적 관리와 항행의 자유 확보를 국가안보 및 글로벌 경제 질서 유지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8]

-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 주요 국제 해상 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의 안정성을 글로벌 경제 질서 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간주, 중동 내 군사적 개입 역시 이러한 전략적 인식과 일정 부분 연계되어 있음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급망·에너지·안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안보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9] 핵심 해상 통로에 대한 경쟁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병행 중

5 Bulent Gokay & Lily Hamourtziadou, "What the war on Iran means for the petrodollar and the US hegemony," cesran international, https://cesran.org/what-the-war-on-iran-means-for-the-petrodollar-and-the-us-hegemony.html (Accessed: April, 16, 2026)

6 오정석, "최근 비(非)달러화 석유거래 증가의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https://www.kcif.or.kr/finance/financeView?rpt_no=33109&mn=002006 (검색일: 2026년 4월 12일)

7 Mariel Ferragamo, "The Strait of Hormuz: A U.S.-Iran Maritime Flash Poin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updated March 12, 2026, https://www.cfr.org/articles/strait-hormuz-us-iran-maritime-flash-point/ (Accessed: April, 16, 2026)

8 Al-Hashemi, "The Strait of Hormuz is not just an oil chokepoint,"

9 Department of War,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 23, 2026 https://media.defense.gov/2026/

-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글로벌 초크포인트에 대한 영향력 강화는 동맹국 보호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및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짐[10]

■ 이란은 비대칭 전술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을 전략적 억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란은 드론·기뢰·미사일·해상 통제 위협 등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미국 및 서방국가에 군사·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략을 전개 중
- 특히 선박 통항 위험 증가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국제 보험료 및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며,[11] 실제 물리적 봉쇄 이전에도 글로벌 시장에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유발하고 있음
- 최근에는 자동식별시스템(AIS) 기반 선박 식별 능력과 제한적·선별적 통항 통제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해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공급망 위험 요인으로 커지고 있음

■ 중동 위기는 해양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이 분리될 수 없는 경제안보 이슈임을 다시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

- 과거에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주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논의되었다면, 최근에는 반도체·비료·정밀화학·첨단 제조업 공급망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12]
-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분절화와 경제 블록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요 해상 초크포인트의 불안정은 국가 간 비용 전가와 공급망 재편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해상 통제의 완전한 안정성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중동 정세 장기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해상 물류 질서의 변동성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Jan/23/2003864773/-1/-1/0/2026-NATIONAL-DEFENSE-STRATEGY.PDF (accessed: April 21, 2026).;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ov 2025,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 (accessed: April 20, 2026)

10 Clayton Thomas, "Iran: Background and U.S. Policy" CRS REPORT, May 22, 2025,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7321 (accessed: April 21, 2026).

11 최재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보험산업 위기… 전쟁위험 및 선박 보험료 급등," 『매일일보』 2026년 4월 7일,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62262 (검색일: 2026년 4월 20일)

12 Department of War,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 23, 2026 https://media.defense.gov/2026/Jan/23/2003864773/-1/-1/0/2026-NATIONAL-DEFENSE-STRATEGY.PDF (accessed: April 21, 2026).;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ov 2025,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 (accessed: April 20, 2026)

3. 대(對)중국 견제

▪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과 첨단 산업 경쟁 간의 연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 제조업 경쟁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전력·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성이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되는 양상이 커지고 있음
- 특히 AI 산업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전력 집약적 산업 구조를 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및 공급 안정성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큼

▪ 중국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불안정은 중국 산업 경쟁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중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이란은 중국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 및 일대일로(BRI)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은 이란과의 장기 경제협력 및 에너지 거래를 통해 제재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원유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13] 위안화 기반 결제와 비공식 공급망 활용도 병행해 온 것으로 평가됨[14]
- 그러나 중동 위기로 인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불안정은 중국 제조업 전반의 비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15] 이는 AI 데이터센터·반도체·배터리·정밀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은 경제안보 전략 차원에서 공급망·에너지·기술 경쟁을 연계하는 접근을 강화하고 있음[16]

- 미국은 최근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을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관리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략 산업 성장에 대한 견제도 병행하고 있음

---

13 Jin Douyun, "The end of AI is electricity: What fuels the power advantage? : People's Daily," PEOPLE'S DAILY ONLINE, March 09, 2026. https://en.people.cn/n3/2026/0309/c90000-20433430.html, (accessed: April 20, 2026).

14 트럼프 1기의 '최대 압박' 캠페인(2018)으로 이란 원유 수출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중국은 소형 독립 정유사·제재 전력 소형 은행·홍콩 유령법인을 활용한 제재 우회 네트워크로 이란 수출 물량의 80% 이상, 하루 평균 약 140만 배럴을 수입. 장용석, "중국이 對이란 제재 버팀목 됐다…"원유 사주고 자금 지원"" 『뉴스1』 2026년 4월 8일.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128811 (검색일: 2026년 4월 10일)

15 "China's factories snap years-long deflation spell on Iran war price shock," Reuters, April 10, 2026,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factories-jolts-back-to-inflation-on-iran-war-price-shock-2026-04-10/ (accessed: April 20, 2026).

16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October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accessed: April 20, 2026).

- 일부 분석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에너지 및 해상 공급망 영향력을 활용해 중국의 전략적 비용 부담을 높이려는 접근을 강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17]
- 다만 중동 위기의 전개 양상과 국제 에너지 시장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실제 정책 효과 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동 지역은 향후 미·중 경쟁이 경제·안보·기술 영역에서 중첩되는 핵심 전략 공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중동 내 안보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해상 질서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에너지 확보와 경제협력을 통해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중동 지역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지가 아니라, 에너지·금융·물류·첨단 산업 공급망 경쟁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핵심 전략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블록화 흐름을 가속화 할 가능성이 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상당한 경제안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7 Vakhshouri, "'Energy dominance' reconsidered: From domestic abundance to global strategic leverage," (2026).

Ⅲ 지경학적 파급효과

1.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불안정성

▪ 중동 위기 장기화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불안정성을 키우며 글로벌 에너지·물류·공급망 체계 전반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음

- 이란은 비대칭 전술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을 전략적 억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18]
-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제 해운시장 내 전쟁 위험 보험료 상승과 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비용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은 글로벌 에너지·금융 질서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동 위기 심화 시 국제 유가와 LNG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주요 수입국들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무역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정학적 위험으로 달러화 등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는 단기적 흐름과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및 결제 체계 다변화 움직임이 병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일부 국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전략 비축 확대와 비달러 기반 결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글로벌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의 중심적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이번 중동 위기는 해양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이 분리될 수 없는 경제안보 이슈임을 다시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 가능

- 주요국들이 공급망 안정성과 전략 자원 확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해상 초크포인트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 확보 경쟁도 심화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해상 질서의 완전한 안정성 확보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중동 정세 전개 방향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 체계의 불확실성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18 최재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보험산업 위기… 전쟁위험 및 선박 보험료 급등,” 『매일일보』 2026년 4월 7일,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62262 (검색일: 2026년 4월 20일)

2. 글로벌 금융질서 변동성 확대

▪ 중동 위기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국제 금융 질서 간의 연계성을 다시 부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 원유 거래는 오랜 기간 달러 기반 결제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중동 지역의 안보 안정성과 미국 중심 금융 질서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발전해 옴
- 그러나 최근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일부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19]
- 중국·러시아·중동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통화 결제 시도, 금 보유 확대, 대체 결제 시스템 구축 논의 등이 병행되면서 국제 금융 질서의 다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동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는 양상

-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하며, 단기적으로 달러화·미 국채·금(Gold) 등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20]
- 다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유동성과 신뢰도, 미 국채 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달러 중심 체제가 급격히 대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함

▪ 비(非)달러 기반 에너지 거래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논의 중

- 최근 일부 산유국과 신흥국들은 위안화·자국통화·디지털 결제 기반 에너지 거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21] 중국은 위안화 기반 국제 결제 시스템(CIPS) 확대와 디지털 위안화 활용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22]
- 이란과 러시아 등 제재 대상 국가들 역시 미국 금융제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달러 기반 결제 및 우회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19 서지연, "전쟁 한달 만에 12조 빠졌다…중앙은행들 美국채 '매도 러시'," 『헤럴드경제』 2026년 3월 31일,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6772 (검색일: 2026년 4월 20일)

20 고정삼, "프랑스, 美에 보관하던 金 전량 처분…"홍콩 글로벌금고 기회"," 『한국경제』 2026년 4월 9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0997397, (검색일: 2026년 4월 20일); 한승곤, ""무섭게 쓸어담는다" 中 인민은행 17개월째 금 매입 지속," 『파이낸셜뉴스』 2026년 4월 9일, https://www.fnnews.com/news/202604090552423940 (검색일: 2026년 4월 21일)

21 Zachary Fillingham, "Sunset over Bitter Lake: Iran War and the Petrodollar," SITUATION REPORTS March 27, 2026, https://www.geopoliticalmonitor.com/sunset-over-bitter-lake-iran-war-and-the-petrodollar/ (accessed: April 25, 2026)

22 Vakhshouri, "'Energy dominance' reconsidered: From domestic abundance to global strategic leverage," (2026).

- 그러나 글로벌 원유 거래와 국제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이며, 대체 결제 체계 역시 제도적 안정성·시장 신뢰·유동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중동 위기는 글로벌 금융·에너지 질서의 구조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 유가와 물류비용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주요국들이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금융·통화·에너지 체계 역시 블록화와 다변화 흐름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글로벌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제 금융 질서는 급격한 체제 전환보다는 점진적 조정과 병행 구조 속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중동 지역 내 미·중 경쟁 심화

▪ 중동 지역은 에너지·안보·공급망 경쟁이 중첩되는 핵심 전략 공간으로서 미·중 경쟁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안보 영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해상 질서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은 에너지 확보와 경제협력으로 중동 내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이 반도체·핵심광물·AI·에너지 공급망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중동 지역 역시 단순한 산유 지역을 넘어 경제안보 경쟁의 핵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음

▪ 미국은 중동 내 안보 영향력을 유지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해상 질서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음

-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주요 해상 교통로(SLOC)의 안정성을 글로벌 경제 질서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내 군사적 존재감을 지속 유지하고 있음[23]
- 일부 분석에서는 미국이 중동 내 영향력을 유지함으로써 공급망·에너지·핵심광물·첨단기술 경쟁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접근으로 평가[24]

23 Michael Ratney, "How Does Saudi Arabia See the War with Iran?," CSIS, March 18, 2026, https://www.csis.org/analysis/how-does-saudi-arabia-see-war-iran (accessed: April 17, 2026).

24 Ron Bousso, "Iran war hands OPEC's swing producer crown to America," April 27, 2026,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iran-war-hands-opecs-swing-producer-crown-america-2026-04-27/ (accessed: April 17, 2026).

- 다만 미국 역시 장기적인 군사 개입 비용과 국내 정치 부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제약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경제협력과 에너지 연계를 기반으로 중동 내 지속 가능한 영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BRI) 전략과 연계해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 추진, 위안화 기반 결제 확대와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 내 중국 영향력 확대를 시도
- 그러나 중동 위기로 인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불안정은 중국 제조업과 첨단 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공급망·기술 견제 정책도 중국의 전략적 부담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 가능

▪ GCC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실리적 균형 전략을 강화하는 양상

- 사우디·UAE·카타르 등 GCC 국가들은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투자·기술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다층적 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중동 국가들이 특정 국가 중심 질서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기보다는, 다변화된 외교·경제 전략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흐름으로 이해 가능
- 특히 에너지 전환과 산업 다변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역량과 중국의 경제·인프라 역량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Ⅳ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 대안

1. 시사점

▪ 이번 중동 위기는 에너지·금융·물류·기술 공급망이 상호 연결된 경제안보 시대의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가능

- 과거 중동 리스크가 주로 원유 수급과 유가 변동 차원에서 인식되었다면, 최근에는 반도체·배터리·정밀화학·물류·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 경제안보 위기로 확산하고 있음
-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해상 초크포인트의 불안정은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효율성 중심 구조에서 안정성과 회복탄력성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한국은 높은 대외 의존도와 중동 중심 에너지 수입 구조로 인해 지정학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짐

- 한국은 원유·LNG·석유화학 원료의 상당 부분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 및 해상운임 상승은 정유·화학·철강·항공·해운 등 주요 산업의 비용 부담 확대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또한 헬륨·암모니아·요소 등 특정 전략 품목의 공급 차질 가능성은 반도체·배터리·정밀화학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장기화 시 수입 물가 상승과 기업 생산 비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내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

▪ 중동 위기는 환율·금융시장 변동성과 함께 한국 경제의 대외 민감도를 다시 부각하는 계기로 작용

-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등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수입 물가 상승과 외환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유가·고환율이 동시에 진행되면 국내 소비·투자·성장에 복합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미·중 전략 경쟁 심화는 한국의 경제·외교·산업 전략에도 구조적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최근 미·중 경쟁은 반도체·AI·배터리·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등 첨단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역시 이러한 경쟁이 중첩되는 전략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공급망 재편과 경제 블록화 흐름이 심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수출시장·중간재 조달·기술 협력 측면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전략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중동 위기는 경제안보 대응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주요국들은 에너지·핵심광물·반도체·물류 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며 전략 비축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 역시 단기적인 수급 대응을 넘어 에너지·금융·기술·물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장기 경제안보 전략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정책적 함의

▪ 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

- 한국은 중동 중심의 에너지 수입 구조와 특정 국가 의존형 핵심광물 공급망 구조를 가지는 만큼, 공급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호주·캐나다·중동 우방국 등과의 에너지·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배터리·정밀화학 산업에 필요한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비축 및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필요

▪ 해상 물류 및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초크포인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원자재 수송 경로 다변화와 전략 물류망 안정성 확보가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정부는 주요 수입 항로에 대한 위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시 선박 보험료 지원 및 긴급 물류 지원 체계 등을 포함한 위기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경제 협력 채널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이나 민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 강화도 중요
- 장기적으로는 국내 항만·물류·에너지 저장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공급망 충격 흡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금융·통화 부문의 안정성 확보와 외부 충격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중동 위기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
- 특히 외환보유액 운용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전제로, 금(Gold) 및 주요 기축통화 중심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논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결제 시스템 다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역내 통화결제 시스템, 공급망 금융 안전장치 등에 관한 연구와 국제 협력도 필요
- 다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중심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급격한 구조 전환보다는 안정성과 시장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접근이 중요

▪ 에너지 전환 및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수소·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믹스 다변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반도체·배터리·AI·첨단 제조업 등 전략 산업은 대규모 전력 수요와 안정적 공급망이 필요한 만큼, 산업정책과 에너지 정책 간 연계 강화도 중요
- 공급망·에너지·첨단기술 경쟁이 결합하는 구조 속에서, 핵심 기술 내재화와 전략산업 생태계 강화 여부가 국가 경쟁력에 핵심이므로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력 강화 필요함

▪ 경제안보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적 균형 외교와 국제 협력 확대 필요

- 한미동맹 기반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중동·유럽·동남아 등 주요 경제권과의 공급망·통상 협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에너지·핵심광물·기후·해양안보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다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역량과 전략적 자율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경제안보는 단순한 통상·산업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전략 체계 구축 검토 필요

참고문헌

고정삼, “프랑스, 美에 보관하던 金 전량 처분…“홍콩 글로벌금고 기회”,” 『한국경제』 2026년 4월 9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0997397, (검색일: 2026년 4월 20일).

서지연, “전쟁 한달 만에 12조 빠졌다…중앙은행들 美국채 ‘매도 러시’,” 『헤럴드경제』 2026년 3월 31일,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6772 (검색일: 2026년 4월 20일).

염지현, “美·日 채권 흔들릴 때…중국만 상승 “대표적 안전자산은 아냐” 『중앙일보』 2026년 4월 1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0117 (검색일: 2026년 4월 21일)

이지헌. “[미·이란 전쟁 한달] 고유가 지속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부상,” 『연합뉴스』 2026년 3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5091000072 (검색일: 2026년 4월 20일).

오정석, “최근 비(非)달러화 석유거래 증가의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https://www.kcif.or.kr/finance/financeView?rpt_no=33109&mn=002006 (검색일: 2026년 4월 12일).

장용석, “중국이 對이란 제재 버팀목 됐다…“원유 사주고 자금 지원”” 『뉴스1』 2026년 4월 8일.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128811 (검색일: 2026년 4월 10일).

조준형, “트럼프”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하는 것도 옵션의 하나”,” 『연합뉴스』 2026년 3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7002300071 (검색일: 2026년 4월 20일).

최재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보험산업 위기… 전쟁위험 및 선박 보험료 급등,” 『매일일보』 2026년 4월 7일,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62262 (검색일: 2026년 4월 20일).

한승곤, ““무섭게 쓸어담는다” 中 인민은행 17개월째 금 매입 지속,” 『파이낸셜뉴스』 2026년 4월 9일, https://www.fnnews.com/news/202604090552423940 (검색일: 2026년 4월 21일).

Al-Hashemi, Mohammed. “The Strait of Hormuz is not just an oil chokepoint,” ALJAZEERA, 27 Mar 2026,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6/3/27/the-strait-of-hormuz-is-not-just-an-oil-chokepoint (Accessed: April, 16, 2026)

Burns, Steven. “A US Strategy for Energy Competition with China in Emerging Markets.” Atlantic Council. April 10, 2026. https://www.atlanticcouncil.org/in-depth-research-reports/issue-brief/a-us-strategy-for-energy-competition-with-china-in-emerging-markets/ (Accessed: April, 20, 2026).

“China’s factories snap years-long deflation spell on Iran war price shock,” Reuters, April 10, 2026, https://www.cfr.org/articles/strait-hormuz-us-iran-maritime-flash-point/. (Accessed: April, 16, 2026)

Gokay, Bulent & Hamourtziadou, Lily.“What the war on Iran means for the petrodollar and the US hegemony,” cesran international, https://cesran.org/what-the-war-on-iran-means-for-the-petrodollar-and-the-us-hegemony.html (Accessed: April, 16, 2026).

IEA,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May 21, 2025, https://www.iea.org/reports/global-critical-minerals-outlook-2025 (accessed: April 15, 2026).

Peters, Nils. “How secure is ChatGPT’s supply chain?,” Research for the World, 24 September 2024, https://www.lse.ac.uk/research/research-for-the-world/economics/chatgpt-supply-chain (accessed: April 15, 2026).

Pomfret, James and Zhen, Summer. “China’s Xi calls for self sufficiency in AI development amid U.S. rivalry,” Reuters, May 1, 2025,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xi-calls-self-sufficiency-ai-development-amid-us-rivalry-2025-04-26/, (accessed: April 20, 2026).

Ratney, Michael. “How Does Saudi Arabia See the War with Iran?,” CSIS, March 18, 2026, https://www.csis.org/analysis/how-does-saudi-arabia-see-war-iran (accessed: April 17, 2026).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ov 2025,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 (accessed: April 20, 2026).

_____,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October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accessed: April 20, 2026).

Thomas, Clayton.“Iran: Background and U.S. Policy” CRS REPORT, May 22, 2025,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7321 (accessed: April 21, 2026).

Vakhshouri, Sara. “‘Energy dominance’ reconsidered: From domestic abundance to global strategic leverage,” Atlantic Council, March 10, 2026,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energysource/energy-dominance-reconsidered-from-domestic-abundance-to-global-strategic-leverage/(accessed: April 20, 2026).

Zachary Fillingham, “Sunset over Bitter Lake: Iran War and the Petrodollar,” SITUATION REPORTS March 27, 2026, https://www.geopoliticalmonitor.com/sunset-over-bitter-lake-iran-war-and-the-petrodollar/ (accessed: April 25, 2026).

Abstract

Ge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2026 Iran War and South Korea's Economic Security Response Strategy

Kunsik Ho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military operation launched by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against Iran on February 28, 2026, has evolved beyond a regional conflict into a broader Iran war with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global energy, financial, and logistics systems. The ongoing war highlights the growing interconnectedness between energy supply chains, strategic maritime chokepoints,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s, and competition in advanced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Strait of Hormuz functions not only as a critical route for global crude oil and LNG transportation, but also as a key transit corridor for strategic materials essential to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etrochemicals, and agricultural production. As a result, instability in the Strait has intensified global supply chain risks and increased transportation and energy costs worldwide.

At the same tim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expanded into energy, 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making the Middle East an increasingly important arena of economic security competition. Some analyses suggest that the U.S. approach toward Iran is partially linked to broader strategic objectives, including maintaining influence over global energy supply networks and increasing strategic cost pressures on China's energy-dependent industries. However, such interpretations remain subject to debate and require continued observation as geopolitical and market conditions evolve.

For South Korea, which possesses a highly trade-dependent and manufacturing-oriented economy with significant reliance on Middle Eastern energy imports, the Iran war presents substantial external vulnerabilities. Rising global energy prices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have increased inflationary pressure and industrial costs, while disruptions in strategic materials such as helium and ammonia could negatively affect semiconductor, battery, and advanced manufacturing industries. In response, South Korea must strengthen long-term economic security strategies through diversification of energy and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enhancement of maritime logistics resilience, and reinforcement of financial and monetary stability.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pursue energy diversification through SMRs and renewable energy, while simultaneously enhancing strategic autonomy through pragmatic diplomacy and balanced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amid intensifying U.S.-China competition.

Keywords: Economic Security, Iran, Weaponization of Chokepoints, Resilience, Strategic Autonomy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www.inss.re.kr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June 2026
No. 386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02-6191-1000 02-6191-1111 www.inss.re.kr

국가안보전략연구원